

예능갑 김건모+활달갑 장지연...예능가 '섭외 0순위'

화제성·재미 다 갖춘 예능 블루칩
SBS '미우새' 결혼과정 방송 추진

가수 김건모(51)가 내년 1월30일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38)와 결혼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방송에서 공개한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의 예능프로그램 동반 출연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건모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출연한 SBS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는 두 사람의 결혼 준비 과정을 방송에 담아낼 계획이다. 제작진은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측과 관련 논의를 긍정적으로 나누고 있다. 박승영 CP(책임프로듀서)는 17일 "박수홍, 김중국 등 자녀들



김건모 장지연

의 결혼을 바라는 출연자 어머니들의 바람이 이뤄져 프로그램으로서는 (김건모의 결혼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모는 어머니 이선미 씨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시청자들은 혼자 사는 스타들의 일상을 다룬 프로그램의 출연자 가운데 '첫 결혼'이라는 점에서 호기심을 드러내왔다.

김건모와 예비신부 장 씨는 지난달 30일 결혼 발표 직전 촬영해 3일과 10일 방송한 SBS '집사부일체'에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집사부일체'는 김건모 커플의 출연에 평소 5~6%대에 머물던 시청률을 11.2%(3일, 닐슨코리아)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다른 예능프로그램 제작진도 김건모·장지연 커플 섭외를 위해 스케줄을 문의하는 등 일찌감치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김건모는 '미우새'로 예능 감각을 뽐냈고, 장 씨도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방송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화제성과 재미를 모두 갖춘 새로운 '예능스타'로 발돋움할 것이라 기대를 내비친다.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관계자는 "결혼식까지 시간이 남아 (예능프로그램 출연 등을)천천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11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김희애의 '윤희에게' 상영관 확대 요청...박지후의 '벌새' 개봉전 화제

스크린 속 '여성들 이야기' 심상찮다

'82년생...'으로 시작된 여성 서사 공감대 형성하며 잔잔한 인기몰이 내년에는 김혜수·라미란 등 바통

깊어진 여성 서사가 스크린을 채우고 있다. 여성의 삶과 그 안에서 마주하는 사랑, 성장 등을 섬세하게 그리는 작품들이 이어진다. 연기자 김희애, 이영애, 정유미, 박지후 등이 올해 그 또렷한 흐름을 이끈 그 주역이라면 내년에는 김혜수, 라미란, 박신혜·전종서 등이 뒤를 잇는다.

여성 서사에 주목해 먼저 화제가 된 영화는 정유미 주연의 '82년생 김지영'이다. 17일 현재 350만여 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동원한 영화는 결혼해 아이 낳고 사는, '평범한 여자' 김지영의 일상을 통해 삶의 가치를 되짚는다. 14세 소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담은 김보라 감독 연출, 박지후 주연 '벌새'는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14만 관객을 모으며 올해 한국영화의 중요한 작품으로 남았다.

14일 개봉한 김희애 주연 '윤희에게'는 꿈이 꺾인 채 살아가는 중년여성이 과거 첫사랑과 만남을 통해 잊고 지내던 자아를 찾는 이야기로 공감을 얻고 있다. 엄마의 꿈을 일깨우는 딸의 역할도



김희애, 이영애, 정유미, 박지후(왼쪽부터) 등이 나란히 여성의 삶과 성장, 사랑 등을 소재로 관객과 이야기를 나눈다. 주연으로 나선 각 영화를 통해 공존과 이해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사진제공 | 리틀빅픽처스·26픽스나·롯데엔터테인먼트·넷인필름

물결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에 힘입어 15일 전일 대비 관객비율이 가장 크게 (47.5%P) 올랐다. 주말인 16일과 17일에도 비교적 적은 상영횟수(400여 회)에도 꾸준히 관객을 불러 모아 SNS에서는 '상영관 확대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성 서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 상황은 그동안 여성 이야기와 캐릭터에 '갈증'을 호소해온 배우들에게도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김희애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몇 년 전까지 우리(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성이 전면엔 나선 영화는 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돌이킨 그는 "여성 서사가 이어져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여성 이야기는 계속된다. 김혜수가 사라진 소녀를 찾는 형사로 나서 이정은, 김선영 등과 함께하는 '내가 죽던 날', 3선 국회의원의 다선 도전기인 라미란의 '정직한 후보', 박신혜·전종서의 스타러 '쿨' 등 여성 원톱 혹은 투톱 영화가 관객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혜리 기자 gdl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4

송혜교, 순국선열의 날 안내서 기증



송혜교

연기자 송혜교가 미국 LA의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에 한국어와 영어로 만든 안내서를 기증했다. 송혜교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만 부의 안내서를 제작해 후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는 1914년 이후 안창호 선생의 가족이 거주했던 공간으로, 당시 재미 독립운동가들의 모임 장소이기도 하다. 앞서 송혜교와 서 교수는 2011년 이후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18곳에 한국어 안내서를 만들어 기증해왔다.

유통, 33세 연하 몽골인 아내와 결별

연기자 유통(62)이 33세 연하 몽골인 아내와 헤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몽골인 아내가 현지인과 재혼하면서 두 사람이 결별했다. 유통과 몽골인 아내는 2010년부터 사실상 관계로 살다 2017년 3월 경남 양산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9세 딸을 두고 있다. 유통의 아내는 2년 전 몽골인과 재혼했고, 딸 역시 아내가 현지에서 키우고 있다.

래퍼 도끼, 주얼리 대금 미지급 논란



도끼

미국에서 활동 중인 래퍼 도끼가 현지 주얼리업체와 대금 미지급 논란에 휘말렸다. 도끼는 목걸이와 시계 등 물품 2억 4700만 원 어치를 가져간 뒤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로부터 피소됐다. 도끼는 이에 분쟁 과정에서 업체가 법을 어겼으며 이에 반발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도끼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도끼는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기자 김규중, 일본인 여친과 헤어져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연기자 김규중이 일본인 여자친구와 결별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규중은 7월 SNS에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논란을 모았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던 당시 일본 여행을 갔다는 오해를 받으며 이를 삭제했다. 이에 그는 해당 여성이 일본인 여자친구임을 밝혔다. 김규중은 출연 연극 '왕복서간(往復書簡):심오년 뒤의 보충수업'의 막을 16일 내렸다.

'비자 발급 거부' 승소했지만...불신 키운 유승준

"한국에 기여" vs "경제활동 속셈"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의혹 속에 17년 동안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정부를 상대로 낸 사증(F-4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겨 입국 가능성을 넓혔다. 하지만 실제 입국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 처분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입국할 수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는 외교부가 재상고하더라도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향후 더 중요한 관심사는 유승준이 실제로 한국에 올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소송은 유승준에 대

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이는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와는 별개다"면서 "비자 발급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써만 무조건 비자가 발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며 향후 엄격한 절차를 예고했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재상고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현재 그 단계까지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에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과 시선이 싸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병역 기피 여부와 함께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C-3)가 아닌,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입국 뒤 연세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다. 유승준은 이번 판결 직후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지만, 누리꾼들은 "결국 경제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프듀' 전 시리즈 조작 파문...국제적 망신까지

日 '프로듀스101 재팬' 이례적 해명
"한국 조작 관계자들과 연관 없다"

케이팝텔레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프로듀스'의 전 시리즈에 걸쳐 문자 투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즌 1·2로 데뷔한 그룹 아이오아이와 워너원에도 불똥이 튀었다.

앞서 경찰은 시즌 3·4인 '프로듀스48'과 '프로듀스X101' 외에 시즌 1·2의 시청자 문자 투표 원본 데이터와 최종 순위가 달라진 정확도를 포착했다. 시즌 3·4 조작 혐의는 이미 구속된 연출자 안준영 PD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시즌1은 현재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전 엠넷 한동철 CP(책임프로듀서)와 안 PD가 2016년 제작, 방송했다. 안 PD는 시즌2부터 함께 구속된 김용범 CP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시즌 1·2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배출 그룹 아이오아이와 워너원의 일부 멤버들이 시즌 3·4 부정에 연루된 연예기획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는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비난을 받고 있다. 멤버 구성이 제작진의 개입으로 실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미 그룹 활동을 끝내고 한창 개별로 나선 멤버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이어지고 있다. 12월 재결합을 앞두고 한창 준비 중이던 아이오아이의



아이오아이

활동이 무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엠넷 측은 17일 "관련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문은 국내에 그치지 않고 있다.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방송사인 CJ ENM이 일본 요시모토호엔에 포맷을 수출한 뒤 9월3일부터 일본 지상파 방송사 TBS가 방영 중인 '프로듀스101 재팬'의 주최자 이름이 오른 까닭이다.

이에 현지 일부 시청자가 의혹을 제기하자 '프로듀스101 재팬' 측은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프로듀스101 재팬' 측은 "일본판은 독자적인 운영 체제에 따라 제작하고 있다"며 "조작 과정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CJ ENM 직원이나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는 등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